

**주일예배**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예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2026년 2월 8일 ( 제 1344 호 )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동우컴퍼니**

## 엔진 꺼질라

우리 성도들은 세계 곳곳에 살고 있다. 심지어 남태평양 한복판에도 우리 성도가 있다. 참치잡이 원앙어선의 기관장인 문경연 장로다. 그는 모든 예배를 인터넷을 통해 드리며 신앙생활을 한다. 언젠가 그가 한 말이다.

“목사님, 망망대해에서는 집채만 한 파도가 가장 무서운 적일 것 같지요?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배의 엔진이 꺼지는 일입니다. 엔진만 멀쩡하면 어떻게든 키를 조절해서 파도를 이겨낼 수 있는데, 엔진이 꺼져버리면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배가 전복될 수 있습니다.”

문 장로의 말에 나는 생각이 깊었다.

사람들은 살면서 마주하는 문제가 최대의 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말 큰 적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다. 배가 엔진만 살아 있으면 파도나 해일도 이겨낼 수 있지만, 엔진이 멈춰버리면 당할 수밖에 없듯이, 아무리 큰 문제가 들이닥쳐도 성령만 소멸되지 않았으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귀신을 내쫓으면 해결되고, 기도하여 하나님과 교신하면 되기 때문이다.

왜 성경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는지 이제 알겠는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성령의 소멸을 막을 수 있기에 그리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만 소멸치 않으면 집채만 한 문제도 끄떡없이 이겨내고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문 장로가 치는 그물의 반경이 거의 4km  
라고 한다. 어마어마하다. 그러니 그로 인  
해 잡히는 참치의 양이 그 얼마겠는가. 성  
령의 역사의 반경은 그보다 크다. 우주를  
움직일 수 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만 입  
는다면 어떤 문제든 거뜰하고, 무엇이든 해  
결할 수 있다.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태산 같은 걱정  
에 눌려 있는가?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엔진, 성령이 꺼진 것이 큰  
문제다. 우선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었는  
지부터 살펴라. 성령의 불씨가 시들하거든  
불이 꺼지기 전에 어서 기름을 부어라. 깨  
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5:17).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전11:1). 목사님이 언제나 설명하시듯, 세미나란 본시 어떤 분야에 대해 다수가 인정하는 성공을 거둔 사람이 강사로 나와 자신이 그 분야에서 성공하게 된 노하우를 전수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유명 강사가 나오는 세미나에는 성공의 노하우를 배워보려는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몰려들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목회자 세미나란 목회 성공, 목회 성장의 비결을 전수하는 자리다. 목사님은 목회 41년 차에 들어서셨고, 단 1명을 놓고 목회를 시작하여 현재 전 세계 75개국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성

질이 들었고, 수많은 성도들이 헌신 봉사 해주었다. 그러다 계속 증가하는 인원을 수용할 수 없어 이제는 세계에 나가서 사현지에서 목회자들을 가르치신다. 베네수엘라(Venezuela)에서 만여 명의 목회자들을 가르치신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미국 시카고(Chicago)에서 나훔(Nahum) 목사가 이끄는 마라나타 교단 총회 소속 수천 명의 목회자를 모아 놓고 세미나를 하신 적도 있다. 그리고 오는 3월 말, 미국 캔자스시티(Kansas City)에서도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중남미 목회자들을 모아 세미나를 진행하실 계획이다.

목사님은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많은 말

가 있다. 두려움과 공포는 무지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목사님은 2박 3일의 세미나 마지막 시간, 이번 세미나를 마무리하시며 예수께서 주신 새 계명, 예수께서 ‘내 계명’이라고 강조하신 그 말씀을 설교하셨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13:34).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요15:12).

2박 3일 동안 매시간 3시간 넘게 혼신을 다하신 끝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남기는 말씀이라 더욱 무겁고 숙연하게 다가



2026 예수중심교단 목회자 세미나(1월 26일~28일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장하신 분이다. 그에 더하여 목사님의 삶은 사도 바울처럼 오로지 그리스도께 헌신되어 있다.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단지 어떤 한 분야에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온 삶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헌신되어 스스로를 부단히 갈고 닦은 경지에 이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러기에 잘 알다시피 목사님의 목회자 세미나에는 목사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 배우려는 목회자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다. 2000년대 초 장성 예루살렘기도원에서 수차례 개최되었던 세계목회자 영성세미나를 잘 알 것이다. 해외에서 천여 명의 목회자들이 몰려들었다. 많은 물

씀들을 하셨지만, 대표적으로 첫째, 목회  
에 성공하려면 사람과 연장을 골라서 써  
라. 둘째 마음이 맞지 않는 자와 일하지  
말라. 셋째, 성령은 암행어사 마패와 같  
은 것이다. 넷째, 게으른 자에겐 기대할  
것이 없다는 제목으로 강의하셨고, 보조  
강사를 통해 목회 성장을 위한 AI 활용방  
안, 그리고 세계 선교에 대한 간증의 시  
간으로 세미나를 진행하셨다.

특히 시대가 변하고 있는 현실을 목회자들이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원칙에 굳게 서되, AI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시대적 흐름을 읽고 적극 배우고 익혀서 목회 성장에 활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목사님 늘 말씀하시듯, 지식이란 아는 것이고, 아는 자에겐 자유

왔다. 어찌 보면 진정 나를 닮으라는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지 모른다. 다른 그 어떠한 성공을 거두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복음의 핵심을 놓친다면 공허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 소떼와 양떼를 기를지게 하자”는 잠언 27장 23절 말씀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 교단의 목회자들이 진정 환골탈태(換骨奪胎)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는다. 목사님 말씀처럼, 단 한 사람만 변화되어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시대를, 세계를 변화시키는 대역사를 이루어가실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 한은택 목사

## 미국 캔자스시티 목회자 세미나

**\* 날짜 : 3월 25일(수)~4월 3일(금)**

구독신청 02) 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잠9:7~9)

# 적보다 무서운 것이 무능한 지휘관이다

2026년 예수중심교단 목회자 세미나에서 전국과 해외에서 온 목회자들에게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적보다 무서운 것이 무능한 지휘관이다.”

이는 지휘관의 능력은 한 나라의 국운을, 한 단체의 존폐를 좌우할진대, 리더의 잘못된 판단과 역량 부족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이끄는 사자 부대보다 사자가 이끄는 양의 부대가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역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무능한 지휘관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우(愚)가 있습니다. 바로 용인술(用人術)에 어둡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 사람을 제대로 기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저 학벌이나 보고, 혈연이나 지연, 학연에 치우쳐 사람을 쓰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사람을 잘못 쓰면 집이요, 낭패일진대, 그래서 성공한 농사꾼은 씨앗부터 고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딤후5:22). 사람을 아무나 쓰지 말라는 경고의 말입니다.

## 경영은 관리요 관리는 점점이다

아무나 쓰면 안 됩니다. 써야 할 사람인지, 도와줄 사람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제가 해외집회 초창기 때는 일행이 거의 열 명 가까이 났습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니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짐이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딱 두 명 데리고 다닙니다. 차별이 아니라 구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 아무나, 누구나 쓰셨을까요? 아니요, 철저히 골라 쓰셨습니다. 제자를 택할 때 감정적으로 아무나 택한 것이 아니라 기도 후에 제자를 고르셨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막3:13~15).

마태복음 13장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마13:47~48)는 말씀이 있지요? 쓸 만한 사람을 골라 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써야 할까요? 유능한 지휘관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골라 쓸까요?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참고해보겠

습니다. 이드로는 말합니다.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재택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이를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출18:21~22).

첫째, 유능한 지도자는 재택을 겸비한 자를 씁니다. 재택(才德)이란, 재주와 덕을 갖춘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재를 찾아 쓴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덕까지 갖춘 자면 금상첨화겠지요.

세상은 인재 제일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인재를 조금 경히 여



총회장 이초석 목사

기 는 경향이 있습니다. 겉손이란 틀로 그들을 가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인재를 써야 합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 일머리를 아는 사람이 해야 능률적이지 않겠습니까?

둘째, 유능한 지도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절대 악을 행치 않고, 죄를 짓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쓴다면 그로 인해 단체가 공멸할 수 있습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 때문에 배가 침몰했고요, 아간 하나로 인해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요셉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하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그 단체에 복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요셉으로 인해 애굽이 복을 받은 것처럼.

그리고 저는 여기에 덧붙입니다. 셋째, 유능한 지휘관은 좋은 사람보다 분명한 사람을 씁니다. 저는 좋은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는 사람, 법 없이도 산다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시아버지가

열둘이다’라는 말은 심한 욕입니다. 분명 해야지요.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가 자신의 최후가 이르렀음을 알고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호한 어조로 결단을 촉구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24:15). 양다리 걸치지 말고 신앙에 분명하라는 말입니다.

요즘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신앙에 분명하라는 말입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지도자인 목사의 신앙 노선이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중만의 신앙, 타

종교와 타협하고 손을 잡는 뜻뜻미지근한 신앙으로 가기 때문에 양떼들이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이끌면 둘 다 구렁이에 빠지는 법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계3:15~16).

넷째, 유능한 지휘관은 게으른 자를 쓰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잠10:26). 이에다 식초를 들이부으면 어찌 될까요? 눈에 연기를 피워대면 눈을 뜰 수나 있을까요? 그러니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게으름은 인생의 암입니다. 암은 얼른 잘라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를 그대로 방치한 종을 주인이 잘라

내지 않습니까? 그건 매물찬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사과박스에서 사과 하나가 썩으면 다른 사과까지 다 썩게 됩니다. 그러니 얼른 끄집어내야 나머지 사과를 살릴 수 있습니다.

다섯째, 부정적인 자를 쓰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도 안 했는데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있지요? 저는 그런 자와 절연합니다. 생선 가게에 오래 앉아 있으면 몸에 생선 냄새가 배는 법, 부정적인 자와 함께 있으면 매사 부정적으로 되어 ‘안 된다’, ‘못한다’가 나도 모르게 몸에 뱉니다. 생각이 썩은 자에겐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긍정적인 사람, 의욕적인 사람을 채용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에서 창의력이 발동되고, 상상력이 발휘되어 꿈같은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섯째, 조급한 자를 쓰지 않습니다. 제가 70년이 넘도록 조급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조급한 자의 결말이 어떠한지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잠20:21),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잠19:2). ‘빨리빨리’와 ‘조급’은 다릅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잠21:5). 빨리빨리 하는 것은 사전 계획과 준비가 치밀할 때 가능합니다. 준비와 계획도 없이 무대포로 후다닥 하는 것은 조급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 무능한 지휘관에게서 지휘봉을 뺏아라

지도자는 사람을 분별하여 적재적소에 앉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일하는 것입니다. 곧은 뿌리가 나무를 지탱하나 영양분을 빨아들여 나무를 성장시키는 것은 잔뿌리가 하는 것처럼. 예수 중심교단이라는 나무를 강력하게 지탱하고 있는 곧은 뿌리는 총회장 목사인 저입니다. 그리고 교단의 모든 교역자, 재직, 직원들이 잔뿌리입니다. 그들이 각자 자기가 맡은 일을 수행할 때 예수중심교단이라는 나무가 창대해지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일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일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느니라”(전7:28). 사람을 얻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더욱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람이 곧 경쟁력이요, 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아름다운 인생 ::

## 인내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현대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단연 ‘속도’입니다. 우리는 더 빠른 인터넷, 더 빠른 배송, 더 빠른 성공에 열광합니다. 기다림은 곧 뒤처짐으로 인식되고, 잠시의 지체도 견디지 못하는 ‘조급증’이 현대인의 새로운 아픔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인내’라는 신앙적 가치는 고리타분한 말로 치부되곤 합니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의 모든 위대한 것들은 반드시 ‘기다림’이라는 숙성 과정을 거쳤다는 점입니다.

인내란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인내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풍랑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평정심을 유지하는 가장 역동적인 정신 활동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인내는 우리를 결핍 상태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가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싹을 피우기 위해 어둠을 견디는 시간은 정지된 시간이 아닙니다. 세포를 분열시키고 에너지를 응축하며 세상을 향해 터져 나오기 위한 가장 치열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몇 년 전, 저는 설악산 대청봉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초가을이었음에도 산 위는 겨울처럼 매서운 추위가 몰아쳤습니다. 몸은 지쳐서 당장이라도 주저앉아 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멈춘다면 결

코 정상에 오를 수 없으며, 몰아치는 추위를 이겨낼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걸음씩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고, 그 멈추지 않는 움직임이 저를 정상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인내는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나아가는 가장 치열한 움직임입니다. 요셉이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길고도 아픈 인내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고통의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계발하고 성장시켰으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며 인내했습니다. 그 치열한 인내가 있었기에 그는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인내의 결과는 복수가 아닌 용서로 나타났습니다. 진정한 인내는 고난을 견디는 힘일 뿐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한 이들까지 사랑으로 감싸 안는 성숙함의 완성입니다(창50:15~21).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인내는 지금 당장 눈앞에 성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뿌린 노력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신뢰’의 다른 이름입니다.

인내는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고귀한 훈장이며,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는 통행증입니다.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하여 올해 ‘내 땅부터 기름진 축복’이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영국 목사

:: 신앙논객 ::

## 신앙의 사춘기(思春期)를 잘 극복하자

‘사춘기(思春期)’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는 어린이에서 성인, 즉 어른이 되는 과정이다. 사춘기를 ‘질풍노도(疾風怒濤)’, 즉 거센 바람과 성난 파도의 시기라고도 한다. 어릴 적에는 뭐든 재미있고 내 뜻대로 다 되는 것 같아서 마냥 좋았는데, 학교에 들어가 공부도 하고 친구도 사귀면서, 또 몸의 변화를 겪으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생기면 감정이 격해지고 가족이나 학교생활 등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일들에 의심과 회의, 심하면 부정과 탈선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리라.

함께 동역하는 청년, 대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신앙에도 사춘기가 있음을 느낀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포레 친구들과 만나 재미있고, 뭔가 크고 작은 소원들이 이루어지면서 마냥 행복한 줄 알았는데, 성인이 되고 학업과 취업(사업), 가정을 이루는 등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면서 이전과 다르게 하나님과 교회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왜 꼭 이렇게까지 자주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해야 하지?’,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지?’ 보통 이런 청년들을 만나고 상담을 하게 되면 필자가 꼭 해 주는 얘기가 있다. “나

도 그랬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필자도 청년 시절, 우리 교회와 목사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성경과 다수의 서적들을 읽으면서 내 나름대로 검증을 시도했었고, 부서 활동 중 원치 않던 상황과 현실 앞에서 잠수를 탄 적도 있다. 스스로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괜히 주변 교역자분들이나 선배들에게 따지거나 언쟁하기도 했다. 감사한 것은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나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셨고, 무엇보다도 그 어떤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닌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으로서 나를 만나 주신 것이다. 바람 불면 꺼질 촛불과 같던 나의 신앙을 하나님은 사춘기를 통해 질풍노도를 견뎌 내는 등불로 바꿔주셨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도 그분을 의심했던, 그리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위대한 순교자들이 되었다.

신앙의 사춘기는 때와 기간은 다를지언정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잘만 극복하면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신앙에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어른이 되자.

신혁주 전도사

## 찾아내시는 사랑

우리 교회 한 청년의 말이다.

어느 날 대표님이 청년의 이름을 부르며 업무를 지시하셨는데, 많은 사원들 속에서 자신을 기억한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이처럼 누군가 나를 기억해 주는 것은 삶에 커다란 온기를 불어넣는다. 이는 성도를 기억하시고 각각의 형편을 세심히 살피시는 총회장 목사님의 사랑과도 결이 같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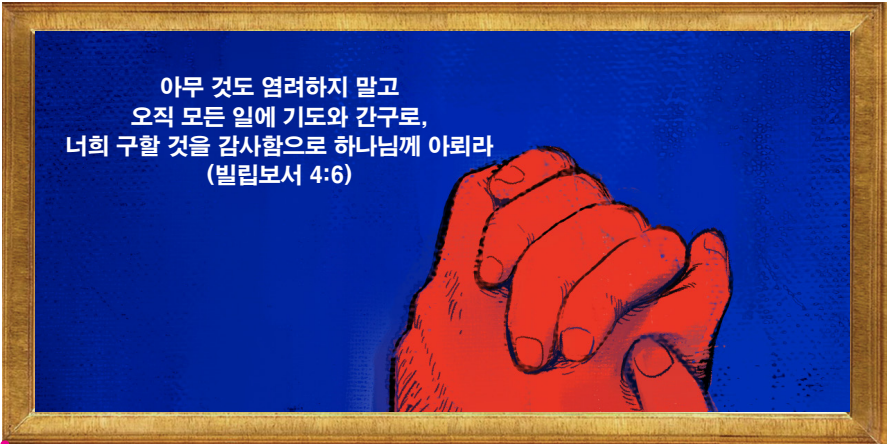
평소 즐겨 부르는 찬양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 특히 나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찾아내셨다’는 부분은, 우리를 분명한 목적으로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한다.

세상을 살다 보면 문득 혼자라는 생각에 막막할 때가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

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겠다는 확고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 19:10)고 그 사랑의 목적을 확실하게 밝히셨다.

행구 속에서 사울을, 뽕나무 위의 삭개오를, 죄를 짓고 스스로 숨었던 아담을 찾아내셨던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찾아내셨다. 그리고 그 은혜는 성경의 한 장면으로 끝나지 않는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과 살아 숨 쉬는 이 순간도 끝까지 나를 찾아내어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사랑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시기에 오늘도 걸어갈 용기를 얻으며 감사의 고백을 드린다.

김혜리 교육 전도사



:: 생명의 말씀 ::

## 내가 서 있는 땅이 기름지려면!

사람들은 묻는다. “어떤 땅에 서야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질문의 방향을 바꾼다. 어디에 서 있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을 보면 이 사실이 분명해진다. 성경은 두 사람을 소개할 때 공통된 표현을 사용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창24:1),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므로”(창26:12). 문장의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이다. 복은 사람이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앙의 출발은 복을 주시는 분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복의 구조를 알고 있었다. ‘땅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들은 첫째, 조건 없이 순종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떠났고, 이삭은 흉년 속에서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 앞에 머물렀다. 순종에 조건을 달지 않았다. 조건을 붙이는 순종은 거래(협상)이지만, 조건 없는 순종은 신뢰다. 자기중심의 신앙은 늘 계산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멈춘다.

둘째, 그들은 다투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양보했고, 이삭은 파는 우물마다 빼앗겨도 물러섰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복은 빼앗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결국 세상은 이삭을 향해 이렇게 고백한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창26:28).

셋째, 그들은 예배를 놓치지 않았다. 예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중심 이동이다. 내 중심의 삶에서 내가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서는 사건이다. 예배가 무너지면 삶은 무너진다. 그러나 예배가 살아 있으면, 광야 같은 땅에서도 인생은 기름진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복을 만들려 애쓰지 않았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을 뿐이다. 반대로 야곱은 복을 만들려다 인생이 꼬였고, 다윗은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복이라 고백했다(시 23:1). 결국 복은 관계의 문제다.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가?’ 이 질문이 내가 서 있는 땅의 미래를 결정한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척박하게 느껴진다면, 땅을 바꾸기 전에 관계를 돌아봐라.

임택함 목사



# 사랑하면 들려요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흥미로운 장면을 보게 되었다. 한 출연자가 ‘기도 제목’이라는 단어를 말하자, 화면에는 ‘기도 제목(?)’이라며 물음표 자막이 달렸다. 교회 안에서는 숨 쉬듯 당연하게 쓰이는 단어가 누군가에게는 해석이 필요한 낯선 단어였던 셈이다. 세상과 묘한 거리감을 느낀 순간이었다.

또 다른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에서 본 장면이다. 감독 특유의 웅얼거리는 발음 때문에 젊은 선수들이 이따금 우왕좌왕했다. 하지만 오랜 세월 함께한 제자들은 달랐다. 감독의 작은 웅얼거림에도 작전과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관계의 깊이가 어눌한 발음조차 선명한

메시지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문득 나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유초등부 시절, 총회장 목사님의 설교는 내게 높은 벽이었다. 특유의 췌소리와 췌표 없는 전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외국어에 가까웠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그 음성 너머에 담긴 하나님의 열정과 진심이 들리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 속에서 큰 은혜를 누리고 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말솜에 자주 노출되어야 한다. 익숙해져야 들리기 마련이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자리에 나를 계속 머물게 할 때, 낯설었던 하늘의 언어는 비로소 나의 일상

언어가 된다.

둘째, 하나님과 친해져야 한다. 제자가 스승의 의중을 찰떡같이 알아들듯, 우리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우정을 쌓아야 한다. 사랑하면 상대방의 작은 숨소리에 담긴 의미까지 알게 되는 법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 세상의 소음은 줄이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자. 서둘더라도 자주 듣다 보면, 어느덧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속삭임이 그 무엇보다 선명하게 들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요 10:27).

전호정 집사

:: 한국교회사 ::

## 제주선교의 선구자 이기풍 목사

이기풍 목사님은 1868년 11월 21일 평양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재치 있고 슬기로운 주위 사람들로부터 신동으로 불리었다. 그러나 그는 사납고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다. 나이가 들면서 혈기가 왕성해지자 사나운 기운을 여지없이 발휘하기 시작하였고, 박치기와 돌팔매질의 명수로 이름을 날렸다.

1885년 이후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평양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하지만 당시 위정척사운동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서양인을 경계하였고, 청년 이기풍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날 집을 나서다 코 큰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이분은 사무엘 마펏 선교사였는데, 이기풍은 친구들과 때 지어 몰려가 그의 집에 돌을 던졌다. 또한 마펏 선교사가 장터에서 무슨 책을 들고 서툰 조선말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반사적으로 발밑의 돌을 찾아 힘껏 날렸다. 날아간 돌이 마펏 선교사의 턱에 정통으로 맞았고,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이기풍은 쓰러진 그를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시치미를 떼고 그 자리를 떠났다.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이기풍은 원산으로 갔다. 거기서 스왈론 선교사를 보았는데, 스왈론 선교사를 보고 이기풍은 자신이 돌로 쳐서 피 흘리게 했던 마펏 선교사가 떠오르면서 마음에 괴로워하였다. 하루는 마루에서 그 일을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방안이 환해지더니 머리에 가시관을 쓴 분이 나타났다. 너무도 환하게 빛나는 그분을 쳐다볼 수조차 없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毆박하느냐? 너는 나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너무나 놀라서 깨어보니 꿈이었고,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있었다.

이기풍은 그 자리에 엎드렸다. 과거에 지은 수많은 죄가 자꾸만 머리에 맴돌면서 회개의 눈물이 한없이 흘러내렸다. 그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분의 증인으로서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 후

하나님의 은혜로 스왈론 선교사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스왈론 선교사는 그의 체험을 들더니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었다. 복음은 그를 감격시켰고 그의 내면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는 즉시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부터 그의 삶은 180도 달라졌다. 꾀박자의 삶에서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었다.

이후 이기풍은 스왈론 선교사의 조사 역할을 하며, 그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고, 설교와 각종 행정업무를 담당했다. 그리고 1898년부터 약 4년간 성경을 판매하고 보급하는 매서인이 되어 복음을 전했다. 1903년 신학교에 입학하여 5년 후 목사안수를 받고 초대 한국인 목사 7인 중 한 명이 되었다.

목사 안수 후, 총회에서 이기풍 목사님의 제주도 선교사 파송을 결정했다. 당시 제주는 탐라국으로 불리는 외국과 같은 땅이었고, 말도 잘 통하지 않았다. 더구나 흥선대원군의 전주교 박해사건으로 제주도 사람들은 예수교를 굉장히 꺼렸다. 그러나 윤희에 사모와 마펏 선교사의 격려와 기도로 조선장로교회의 첫 번째 선교사로서 제주도에 파송되었다.

전도 초기에 너무나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다. 죽을 만큼 두들겨 맞기도 하고, 제주도 사람을 야만인 취급하였다고 하며 청년들이 목을 졸라 죽이려고도 하였다. 영육이 약해진 이기풍 목사님은 평양으로 돌려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썼다. 마펏 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기풍 목사, 당신이 때린 내 턱의 흉터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으니, 이 흉터가 아물 때까지는 분투 노력하십시오.” 이 편지를 읽은 이기풍 목사님은 옹드려 대성통곡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고, 그 후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영적투쟁을 감당했다.

당시 제주도에는 처녀를 뺨에게 바치는 악한 풍습이 있었다. 이기풍 목사님은 처녀를 바치는 날, 처녀를 삼키려 내려온 커다란 구렁이를 단신으로 때려잡았

다. 1909년 5월 큰 홍수 때, 물에 빠진 여인을 건져내는 사건으로 제주도 도민들 사이에 이기풍 목사님에 관한 좋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전도하였다.

그는 농사철에는 농사일을 돕고, 특히 장례를 치러주면 그 가정의 예수를 믿었으며, 사모는 여인들이 해산할 때 조산원으로 돕고 병자들을 돌보며 복음을 전파하였다. 한 청년이 정신이 이상하여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하자 경찰들은 손쓸 방법이 없어 이기풍 목사님에게 보냈었다. 그의 기도에 귀신 들린 정신병자가 치료되면서 ‘목사가 병을 고쳤다’는 소문에 각색 병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여 성안교회가 설립되었고, 드디어 부흥이 시작되었다.

1934년부터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였다. 1938년 9월에 장로교까지도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그 때부터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는데, 이기풍 목사님은 신사참배에 격렬하게 반대하였다. 그는 성도들에게 죽어도 절하지 말라며 순수한 신앙을 가질 것을 항상 강조했다. 70세 이상은 취조와 고문이 법률로 금지되었지만, 이기풍 목사님은 빼와 가죽만 앙상하게 남을 때까지 심한 고문을 당했다. 초주검 상태가 된 이기풍 목사님에게 출감조치가 결정되었지만, 나머지 목사님들이 출감하기 전까지 절대 나가지 않겠다고 버텼다. 결국 건강이 극도로 나빠진 이기풍 목사님은 여수 남면 우학리 섬에 있는 목사관으로 옮겨졌고, 마지막 성찬예식을 거행하고 일주일 뒤, 1942년 9월 20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의 죽음은 신사참배에 저항하다 순교한 많은 신앙인들의 숭고한 정신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이기풍 목사님의 생애는 회심의 감격과 복음을 향한 열정,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시대적 아픔 속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킨 위대한 신앙인의 모범을 보여준다. 그의 헌신과 순교적 삶은 오늘날 한국교회에 여전히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김종춘 목사

### 작년은 어떠셨나요?

2026년 새해가 밝은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갑니다. 지난 한 해를 잘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새로운 한 해도 더 잘 시작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의 지난 한 해는 어떠셨나요? 우리가 함께 외치며 달려온 표어처럼,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은 한 해가 되셨나요?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일 하나라도 새롭게 성공했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은 거로 생각해도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도 여러 가지 전대미문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던 거 같아요. 예전의 저는 10분 정도의 달리기도 어려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5km 마라톤을 두 번, 10km 마라톤을 한번 완주했고, 최대로는 2시간 가까이도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는 근력과 체력을 얻었습니다. 꾸준히 주4~5회씩 러닝을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조금씩 바뀌어 갔습니다. 또 과거에는 새벽에만 기도하다가, 저녁 노량진 기도 모임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 하루 2시간 이상씩 기도의 양을 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안 하던 라디오 방송에도 출연할 기회가 있었고, 사업도 아직 작은 규모지만 두 배로 성장했구요. 안 하던 영어 공부도 다시 하고, 성경 암송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워했던 일기 쓰기도 감사일기 형식으로 매일 쓰고 있고요. 작다면 작고 많다면 많은 일들이 새롭게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제 힘으로 한 게 아니란 걸 잘 알고 있어요. 예전에 이시대 목사님 설교 중에, ‘내가 한 모든 것에 나의 공로는 없다. 다 하나님의 공로다. 하나님이 사지 멸정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마음도 주셔서, 우리가 뭐라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셨거든요. 결국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는 지나갔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혹시 작년에 만족할 만한 성취가 없었더라도 올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우리가 서있는 땅부터 기쁨지게해보자는 각오로 함께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기도와 노력, 두 가지 양손에 꼭 쥐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막9:23).

장명훈 집사

####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